

공공자전거 외면·방치 ‘찬밥신세’

도, 매년 예산 2억가량 투입하며 11곳에서 운영 운용 131대 중 70대 고장·노후화되고 15대 분실 도민들 “이용에 불편”... 공유형 키포드에 밀려

도민을 위한 공공자전거가 외면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제주시 터미널 인근 오라지구대 공공자전거 대여소엔 공공자전거 4대가 비치돼 있었다. 자전거는 녹이 슬어있는 등 관리가 허술한 상태였다. 헬멧도 2대만 비치돼 있어 공공자전거 이용시 헬멧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라도서관 대여소도 상황은 비슷했다. 자전거는 1대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녹슬었다. 설상가상으로 자전거 대여에 필요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화면은 블루스크린이 뜬 채 먹통인 상태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대학로에서 30여분간 확인한 결과 도민들이 키포드를 사용하는 모습은 종종 목격됐지만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찾는 이는 없었다.

도민 강모(33)씨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삐걱대는 소리가 나거나, 반납을 위해 대여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모든 면에서 편리한 공유형 키포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10%까지 높이겠다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자전거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4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등 6곳에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72대를 배치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현재는 11곳의 대여소를 운

영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분야로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7000만원(자전거 유지·보수 정비 2000만원, 대여소 관리비 5000만원, 수리센터 운영비 1억원)에 이른다.

공공자전거는 초기 72대에서 131대로 늘었지만 실제 운용되는 자전거는 46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대 중 70대는 고장 및 노후화로 쓸 수 없어 창고에 보관중이고, 15대는 분실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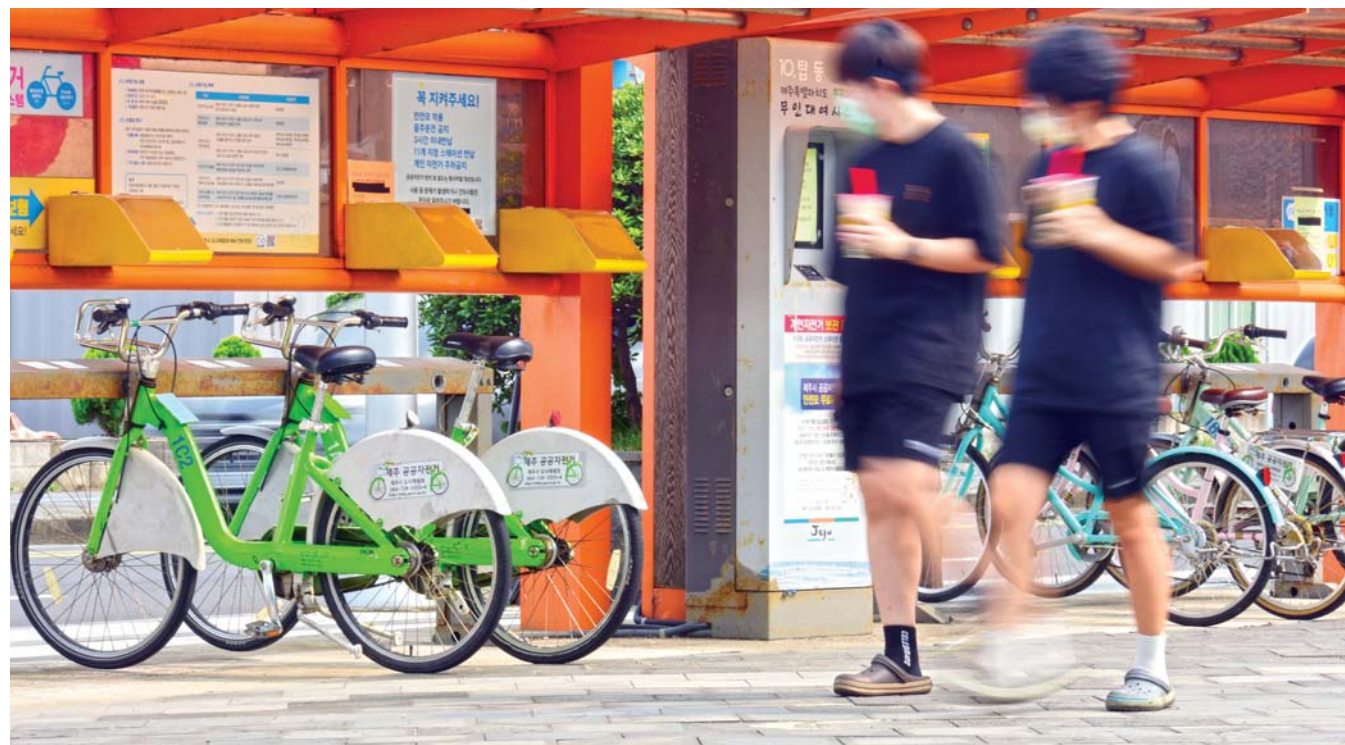
또 지난해 기준 1일 대여건수는

26대에 그치면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키오스크의 경우 자주 고장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내장된 기기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제품은 교체를 진행하는 한편, 보관중인 자전거 중 쓸만한 부품들을 찾아내 기존 제품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1일 제주시 탐라광장에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현재 도내 11곳에서 공공자전거가 대여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마을도서관 옆에 주차장 짓는다고? 도의회, 서귀포시 주차장 복층화사업 심사 보류

마을도서관 근처에 주차빌딩을 증축하려는 서귀포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풍남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이라고 이름 붙은 공영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계획은 서귀포시 동홍동 470-1번지 1196㎡ 부지에 40억원을 들여 3층 짜리 주차 빌딩 1동을 증축하는 것이다. 사업은 서귀포시가 주관하며, 시는 연면적 2636㎡ 규모로 차량 104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빌딩을 증축해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주차 빌딩이 들어설 같은 지면에는 이미 풍남도서관이라는 마을 도서관이 지난 2016년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풍남도서관은 전체 1196㎡ 부지의 약 4분의1인 23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에는 차량 20대를 세울 수 있는 지평식(도로와 대

지가 수평인 상태) 주차면이 조성돼 있다.

현재 서귀포시는 풍남도서관 건물 바로 위에 주차빌딩을 증축하는 방안과 도서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주차 빌딩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서관 이용자들이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주차장 출입구와 도서관 출입구에 대한 동선 분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풍남도서관은 주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그런 공간과 접목해 주차빌딩을 만든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풍남 도서관 측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서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LPG 충전사업자 가격담합 의혹 조사

공정위, 도내 4개 업체 대상

제주지역 LP(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이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윤영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LPG 가스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알고 있으나’는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쯤 SNS를 통해 만나 교제를 하던 여성 B씨와 연락을 회피하자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다 공개해줘? 나 잃을 것 없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순은범기자

점에 공급하고, 최종 소비자인 식당과 가정은 이들 판매점에서 LPG가스를 공급 받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번 의혹은 LPG가스충전소 4곳이 지난해 11~12월 비슷한 시기에 공급단가를 kg당 90원~130원 잇따라 인상한 것을 두고 판매점 업체가 가격담합을 의심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충전사업자 측은 물류비 인상, LPG가스 시장 출혈 경쟁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급가를 인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담합을 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 해수욕장 이용객 100만명 밑돌아

작년보다 8% 감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야간 미개장 등 영향

제주지역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12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03만명 대비 약 8% 감소한 94만4939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함덕해수욕장으로 총 22만3854명이 방문했다. 이어 이호 10만9104명, 중문색달 10만5471명, 협재 10만5252명 순이다. 나머지 해수욕장 8곳은 이용객 수 10만명을 넘기지 못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해수욕장 야간개장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모든 해수욕장이 일시 폐쇄되던데 이어 31일 도내 12개 해수욕장 모두 일제히 폐장됐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일시 폐쇄조치와 야간 미개장 등이 이용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오는 10월까지 해수욕장마다 민간안

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년 해수욕장 운영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 여름철 코로나19 급격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밤마다 해수욕장 주변에서 야외술판을 벌이고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나체사진 협박 30대 집유

이별을 요구한 연인과 그 가족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관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쯤 SNS를 통해 만나 교제를 하던 여성 B씨와 연락을 회피하자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다 공개해줘? 나 잃을 것 없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순은범기자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영주고등학교 교장



이동성
(부: 이영형·모:故 좌임순)

영주고등학교 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산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현승철 외 동문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양박씨 청재공파 조천문중회
회원 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김형섭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레테니스클럽
회장 채정병 외 회원일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서기관



양순철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가족일동